

보도시점 2026. 2. 6.(금) 배포즉시 배포 2026. 2. 6(금)

한-프랑스 140년 우정,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

- 지식재산처,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2. 5.(목) 한-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(서울시 서대문구)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(INPI*)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(AI)·금융·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*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

김 처장과 파스칼 포호(Pascal FAURE)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▲ 심사관 교류,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, ▲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, ▲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·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(Work Plan)에 서명했다.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 기준, 지식재산 보호·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(MOU)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.

회담 이후에는 ‘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’이라는 주제로 ‘한-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(Franco-Korean IP Day Roundtable)’을 개최했다.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 처장, 파스칼 청장,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하여 변리사회, 양국 기업 등에서 60여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식재산의 과제, 새로운 기회 및 역할,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“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”면서 “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시대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이승관 (042-481-5063)
		담당자	사무관	황영은 (042-481-5465)

한-프랑스 최고위급회의, Franco-Korean IP Day 라운드테이블 사진

1. 한-프랑스 지식재산 최고위급회의

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스칼 포흐(Pascal FAURE)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2.5.(목) 오후 1시 45분 주한프랑스대사관(서울 서대문구)에서 '한-프랑스 지식재산 최고위급회의'를 진행했다.



사진 1: 김용선 지식재산처장(오른쪽)이 파스칼 포흐 (Pascal FAURE)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워크플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사진2 : 김용선 지식재산처장(왼쪽 4번째)이 파스칼 포흐(Pascal FAURE) 프랑스 산업재산청장(왼쪽 3번째)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2. Franco-Korean IP Day 라운드테이블

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스칼 포흐(Pascal FAURE)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2.5.(목) 오후 3시 주한프랑스대사관(서울 서대문구)에서 한-프랑스 수교 140주년 계기 'Franco-Korean IP Day 라운드테이블'을 진행했다.



사진 3 :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.



사진 4 : Franco-Korean IP Day 라운드 테이블 전경사진